

이인아 PD “무보수? 참여한 것 자체가 행운”

독일인 유학생 부모 사이서 출생
獨-美-韓 오가며 영화·광고 제작
윤여정·한예리 캐스팅 직접 나서
미국 현지 촬영 등 제작과정 지원



2009년 베를린국제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인아 프로듀서. 사진출처 | 베를린국제영화제 홈페이지

미국영화 '미나리'와 배우 윤여정이 수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윤여정은 11일 현재까지 LA·보스턴 등 현지 비평 가협회가 주는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8개나 거머쥐었다. 영화도 노스캐롤라이나 등 비평가협회 작품상 등 수상 내역을 쌓아가고 있다. 이처럼 영화는 완성도에 대한 호평을 넘어 4월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에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성과에 이르기까지 '미나리'의 제작 과정에 도움을 준 숨은 조력자가 있어 눈길을 끈다. 독일인 유학생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란 뒤 독일과 미국, 한국을 오가며 영화 및 광고 제작자로 활동 중인 이인아 PD이다.

그는 2005년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돈 컴 노킹' 등의 독일 거장 빔

벤더스 감독과 함께 일했고, 영화 '아메리칸 좀비' 등을 제작했다. 베를린국제영화제와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등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영화에 대한 애정만으로 윤여정과 한예리 캐스팅과 미국 현지 촬영 등 '미나리'의 제작 과정에 힘을 보탰다.

●“이민자 이야기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
11일 전화통화로 만난 이 PD는 '미나

리'의 공식 스태프가 아닌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조심스러움을 드러냈다. 한국계로 독일 국적이 이 PD는 미국 이민 가정의 이야기를 그린 '미나리'의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다. 시선을 끄는 힘이 있다”면서 과정을 설명했다.

이 PD는 '미나리'의 “정이삭 감독이 지닌 힘”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정 감독이 첫 장편영화 '문유랑가보'로 칸 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됐던 2007년 인연을 맺은 뒤 부산 등 다양한 영화제에서 만나 우정을 쌓았다. 2018년 정 감독이 송도 유다대 아시아캠퍼스 교수로 초빙되면서 두 사람은 더욱 활발히 교류했다.

이때 '미나리'의 이야기를 접한 이 PD는 윤여정과 한예리에게 시나리오를 건넸다. 윤여정은 2005년 미국영화 '버터냄새'로 친분을 쌓았다. 김주혁, 샌드라 오 등도 출연하기로 했던 영화는 끝내 제작되지 못했지만, 이 PD와 윤여정은 우정을 이어갔다. 한예리도 2000년대 초반 미국영화 제작을 추진하던 계기로 인연을 맺었다. 시나리오를 본 두 배우는 감독의

진정성과 이야기의 힘에 기댔다. 한예리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이소영 대표는 “배우가 감독을 만난 뒤 이야기에 대한 확신으로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나리’에 도움 “내게도 행운”

이 PD는 2019년 '미나리'가 한창 촬영 중일 때 현장에도 날아갔다. 그는 “마침 장기휴가를 가게 됐다”면서 “윤여정 배우에게 밥이라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저 도우미 같은 역할이었다”고 웃으며 돌아왔다.

이 PD의 이름은 20억원 가량의 초저예산 영화인 '미나리'의 'Very Special Thanks' 크레딧(제작자와 감독이 영화 제작에 큰 도움을 준 이들의 이름을 올려 감사로 전하는 자막)에 올라 있다. 그는 개런티 등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다. 이 PD는 “그것조차 부담스럽다. 캐스팅 당시 내가 한국에 머무는 등 우연한 계기였을 뿐이다”면서 “영화가 담고 있는 이야기의 힘만으로도 내가 아닌 그 누구라도 도움을 줬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영화에 참여한 것 자체가 행운이다”고 덧붙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씩쓰리’, 수익금 1억원 유니세프에 기부



‘놀면 뭐하니?’ 씹쓰리

프로젝트 그룹 씹쓰리(유재석·이효리·비)가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를 통해 얻은 수익 1억원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했다. 유니

세프한국위원회는 11일 “음원 및 부가사업 수익금의 일부로,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 전 세계 5세 미만 영유아를 지원하는 데 전액 사용한다”고 밝혔다. 비(비룡)는 “멤버 모두 씹쓰리로 받은 과분한 사랑을 돌려드릴 방법을 고민했고, 소중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배경을 밝혔다. 씹쓰리를 포함한 환불원정대 등 ‘놀면 뭐하니?’ 팀은 이를 포함해 총 17억1000만원을 기부했다.

임상수 감독 ‘소호의 죄’로 할리우드 진출



임상수 감독

영화 ‘하녀’ ‘돈의 맛’ 등의 임상수 감독이 할리우드에 진출한다. 11일 영화제작사 열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임 감독은 미국 2W네트워크와 공동제작하는 영화 ‘소호의 죄’를 연출한다. 뉴욕 예술계의 뒤뜰인 삶과 죄의 문제를 다룬다. 주연으로는 후작 맨, 브래드 피트 등이 물망에 올랐다. 임 감독은 영화 ‘해운대’ ‘행복의 나라’로 작년 칸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 2W네트워크 측은 “독특한 인물 분석, 치밀한 미장센 연출 역량 등에서 가장 적합한 감독”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형 약식 기소

음주운전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부(이병석 부장감사)는 전날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배성우는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 뒤늦게 사실이 알려지자 출연 중이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빅조 유족’ 경제적 어려움 SNS에 알려져

6일 43세의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가수 빅조의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조와 함께 그룹 홀라당의 멤버로 활동한 박사장(박재경)은 11일 SNS를 통해 “고인이 생전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같은 것들이 일절 없다”면서 “많은 병원비, 장례비로 홀로 남은 어머니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빅조 어머니의 은행 계좌번호를 올리고 팬들의 도움을 청했다. 빅조는 6일 경기도 김포의 한 병원에서 체내 염증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 도중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

SBS ‘펜트하우스’ 콘텐츠 영향력 1위

화제의 드라마 SBS ‘펜트하우스’가 콘텐츠 영향력 1위를 차지했다. 11일 CJ ENM이 2020년 12월 5주(2020년 12월28일~2021년 1월3일) 29개 방송 채널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콘텐츠 영향력 지수(CONTENT POWER IN DEX)를 조사한 결과 ‘펜트하우스’가 418.0점으로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을 망라하는 1위에 올랐다. 5일 막을 내린 ‘펜트하우스’는 상류층 사람들의 일그러진 욕망을 그리며 3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2위는 tvN ‘철인왕후’였다. 한편 ‘펜트하우스’는 12일 밤 10시20분에 스페셜 ‘펜트하우스 히든룸-숨겨진 이야기’를 방송한다.



연예인들이 폭 넓은 대중과 소통을 위해 ‘스타 유튜브’들과 손을 맞잡았다. 가수 비는 ‘먹방’ 유튜브 짜양과 방송인 박미선은 ‘먹방’ 유튜브 허밥(원작부터)과 특집 콘텐츠를 내놨다. 사진출처 | 유튜브 영상 캡처



‘스타 유튜브’ 시대…비도 박미선도 먹방 콘텐츠 컬래버

그야말로 ‘스타 유튜브’의 시대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유튜브 버들의 인기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 “함께 작업하지는 톱스타들의 리브콜도 많다”는 한 인기 유튜브의 말처럼, 연예인과 스타 유튜브의 협업이 늘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도 유튜브버들과 함께 만든 이벤트성 콘텐츠로 폭넓은 이용자와 소통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비·박미선도 ‘스타 유튜브’와 함께

가수 비는 7일 자신이 주인공인 유튜브 채널 ‘시즌 비시즌’에 ‘먹방’(먹는 방송) 유튜브인 짜양(박정원)과 함께 식사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3일 만에 265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짜양과 인 터뷰로 유튜브 사용자의 관심을 불러 모은 결과다.

늦깎이 유튜브로 활동 중인 방송인 박미선도 유튜브 채널 ‘미선임파서블’로 8일 ‘먹방’ 전문 유튜브 허밥(좌회제)을 만났다. 김밥 50줄을 나눠 먹는 영상은 공개 이틀 만인 11일 250만뷰를 넘겼다. 채널 동영상 가운데 최고 기록이다. 그동안 영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낸 박미선이 섭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일화성이지만, 이들은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나누고 있어 다시 협업할 가능성도 크다.

방송인 하하와 메이크업 유튜브 이사배, 엑소 카이와 키즈채널 유튜브 헤이지니도

각각 컬래버레이션 영상을 내놨다.

스타들에게는 유튜브와 ‘합방’(합동방송)이 다양한 연령층의 유튜브 이용자들과 교류할 기회이다. 메이크업 관련 유튜브를 운영 중인 A씨는 11일 “메이크업, 먹방 등 분야에서 50만~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버들은 스타들 사이에서도 ‘모시기 경쟁’이 치열할 만큼 인기다”며 “특히 유튜브 활동을 갖 시작한 연예인들이 채널을 알리려 컬래버레이션 제의를 적극적으로 보낸다”고 밝혔다.

●유튜브 ‘먹방 영향력’에 “최고의 홍보 창구”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기업 아이지아이웍스가 작년 9월 한 달 동안 20여건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발

표양·히밥과 찍은 영상분 250만뷰 넘겨 하하·이사배, 카이·헤이지니 등도 협업

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88%에 달하는 4319만명이 유튜브를 사용 중이다. 1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도 29.5시간으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보다 월등히 높다.

연예인 입장에서 유튜브는 포기할 수 없는 훌륭한 ‘홍보 창구’인 셈이다. 문제는 작년 불거진 일부 유튜브버의 뒷광고 파동처럼 수익 확대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필요한 잡음이나 사생활 논란 등에 대한 우려이다. 한 연예인 소속사 관계자는 “비연예인인 유튜브버들에 대한 사생활 검증할 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한 달여 평판 조화를 통해 섭외를 결정하는 등 사전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화양연화’ 역주행…애잔한 감성에 빠지다

박스오피스 2위…누적 7만5000 관객
왕가위 감독 ‘해피투게더’도 재조명



‘화양연화’ 포스터

영화 ‘화양연화’가 새롭게 관객 시선에 들고 있다. 이에 힘입어 연출자 왕가웨이(왕가위) 감독의 또 다른 작품 ‘해피투게더’도 다시 선보인다.

11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리마티스빙 버전으

로 개봉한 ‘화양연화’가 2위에 올랐다. 전주 3위에서 역주행, 10일 현재까지 누적 7만5000여 관객을 불러 모았다.

2000년 왕가웨이 감독이 연

출하고 량자오웨이(양조위)와 장만위(장만옥)가 주연한 ‘화양연화’는 1962년 홍콩의 상하이 이주인 아파트에서 서로를 맞닥뜨린 두 남녀의 사랑과 이별을 그린 작품. 결코 서로 뜨겁게 다가가지 않은 채 헤어짐에 이르러서야 나눌 수밖에 없는 절절하고 애잔한 사랑의 정서를 그려 호평 받아왔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의미하는 제목처럼, 영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절에 대한 회한과 추억을 일깨워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감염병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아련하고도 파스텔 북

고 감성으로 그 고통을 달래준다는 시선이 다. 한 누리꾼은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영화”라고 찬사를 보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때 갖고 있었지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을 알게 되었지만 가질 순 없다”는 회한의 감성을 공유했다.

이 같은 시선은 왕자웨이 감독의 1997년 작품 ‘해피투게더’의 리마스터링 버전을 재개봉하게 한다. 량자오웨이와 장귀룡(장국영)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별하고 만나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는 2월 4일 다시 선보인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